

— 그리스도教 典禮服에 關한 研究 —

L'étude du Costume Liturgique

目 次

- I. 序 論
- II. 典禮와 典禮服
 - 1. 典禮의 意義와 目的
 - 2. 典禮服
 - 3. 典禮色
- III. 各 典禮服의 細部的인 考察
 - 1. 史的由來(Notes Archéologiques)
 - 2. 用途(Usage Actuel)
 - 3. 象徵(Symbolisme)
 - 4. 材料와 裝飾(Matériaux et Ornémentations)
- IV. 典禮服의 裁斷法
- V. 結 論

誠信女子師範大學

Sungshin Women's Teachers College

講師 吳 春 子

Lecturer Oh, Chun Ja

Abstract

Au début l'habit liturgique ne différait de l'habit de fête du simple citoyen que par sa richesse.

C'est seulement quand, dans la vie courante, on adopta la robe courte que le vêtement liturgique commença à se distinguer, même par la forme, du costume civil.

Les ornements liturgiques, en effet, ne sont qu'une forme stylisée de l'habit de fête de la fin de l'Empire Romain (du III^{ème} au V^{ème} siècle).

Pour une cérémonie religieuse on se présente bien habillé. Le même sentiment de respect des choses sacrées a amené déjà, vers la fin de l'antiquité chrétienne, à donner au prêtre un vêtement liturgique spécial.

Pour célébrer la messe, le prêtre revêt par-dessus sa soutane un costume spécial, composé de l'amict, de l'aube, du cordon, du manipule, de l'étole et de la chasuble. Aux messes solennelles, les évêques ajoutent à ces ornements des bas et sandales, des

gants, la tunique et la dalmatique avec la mitre; en certain cas, les archevêques y joignent le pallium. Aux messes solennelles, le diacre porte sur l'aube le manipule et la tunique.

De ces pièces du costume liturgique, on dira brièvement, après leur emploi et leur forme actuel, l'origine et l'histoire, mais seulement après avoir marqué les lignes générales parition et des transformations du costume liturgique dans son ensemble.

L'évolution du costume liturgique à partir du XIII^{me} siècle peut se résumer en quelques mots en raison souvent de la lourdeur des riches étoffes (velours et brocarts) et de l'importance donné à la décoration, toujours par recherche d'une plus grande commodité on a abandonné lentement d'abord, puis rapidement adapté à partir du XVI^{me} siècle, les formes amples pour des formes courtes et étriquées.

Il faut faire quelques exceptions qui marquent l'influence des goûts décoratifs de chaque époque:

La période de 1700 à 1850 marque la complète décadence du costum liturgique.

On a depuis essayé de lui rendre sa beauté et aussi sa signification symbolique, par un retour aux formes, aux étoffes et à la décoration de la deuxième partie du moyen âge.

Souhaitons que, sous la direction des liturgistes, en respectant l'essentiel de la liturgie aujourd'hui, avec le concours d'artistes épris du sens liturgique et des connaisseurs des traditions et de toutes les ressources actuelles on trouve des costumes liturgiques adaptés à notre temps dans un style plus simple et correspondant aux besoins actuels.

I. 序 論

衣裳은 그 自體로써 수 많은 言語와 暗示를 주고 있다. 그리하여 感情과 習慣을 充實하게 表現해 주는가 하면 때로는 倫理的, 혹은 우발적인 表現을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方法으로써 기쁨과 슬픔을 表現 하기도 한다.

더 나아가 衣裳으로써 權威와 權力을, 교만과 겸손을, 貧과 富를, 聖스러움과 俗됨까지 表現하여 상황에 따른 雰圍氣 造成과 品位에 맞는 感情表現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이 衣裳이 人間의 느낌에 至大한 영향을 주고 있음은 우리의 生活經驗을 通하여 잘 알수 있는 바이다,

그리스도教의 聖祭에서 神秘의 現存이 이루어짐을 믿는 信者들과 司祭들은 이와 같은 聖祭의 莊嚴함을 나타내기 爲하여 4世紀 때부터 本格的으로 典禮服을 입어 왔으며 지금까지 입고 있다. 특히 미사聖祭에서는 典禮服 뿐만 아니라 司祭의 動作 하나 하나에도 象徵이 있는 것이다. 한가지 例로써 典禮服의 겉옷 중에 chasuble은 <하늘의 鐘> 혹은 <검히와 사랑과 平和>를 象徵하고, 司祭가 이 옷을 입고 양손을 들어 올려 祈禱드리는 모습은 神秘에 찬 그리스도의 代理者로서 하느님께 모든 것을 바치는 기도자의 모습으로 비쳐진다.

우리 衣裳 中の 하나인 典禮服은 司祭의 몸짓, 典禮의 動作이나 言語의 받침이 되어 典禮의 참 뜻이 더욱 人間의 육안을 通하여 強하게 느껴지게 해 준다. 이러한 깊은 目的에 奉仕하는 典禮服은 司祭 自身은 물론 信者들도 그 目的을 表現할 수 있는 生命있는 典禮服을 갖추어, 입어야 할 것이다. 만일 典禮服이, 어떠한 時代나 또는 一定한 文化圈에 屬한 記念



[사진 1] 기도하는 사제의 모습
 볼란서 Poitiers 博物館, 所藏.
 Mirebeau성당 아래 部分에
 陽刻으로 된.

品의인 衣裳이나 裝飾品으로만 되어 있다면 典禮服의 本意義에서 벗어난 것이라 볼 수 있다.

典禮服의 使命이 하나의 記念品이나 裝飾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禮服의 高貴한 意味를 항상 生生하게 表現하고 仲介해야 하는 것으로, 現代의 方法이나 現代人의 服裝感覺에 맞게 生命있는 典禮服이 되게 하기 爲해 典禮服의 意義를 새로이 認識하고, 또 典禮服이 典禮上의 機能을 어떻게 象徵적으로 表現하고 있는가를 研究하고, 典禮服의 根源的 不變的 意義와 그 歷史的 發展에 關한 研究를 해 볼 必要가 있다고 보아 이 研究를 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教 典禮의 意義와 目的을 살펴 본 후 典禮服의 種類 및 史的 由來, 用途, 象徵, 裝飾, 材料에 關한 研究와 裁斷法에 對해서도 아울러 考察하려 한다.

Ⅱ. 典禮와 典禮服

1. 典禮의 意義와 目的

宗教란 神(하느님)에 對한 人間의 敬神的인 關係를 말하는 것이다. 우리 人間은 創造者이신 하느님과 依存的이고 敬畏的인 關係에 있다. 人間이 하느님을 創造者로 認識하고 容認하는 데에서 禮拜와 讚美, 祈願과 感謝라고 하는 內的 行爲가 人間 안에서 생기게 된다.

처음에는 다만 內的 行爲에 不過한 것이 言行을 通해서 外的인 形態로 나타난다. 이 內的인 宗教心이 團體에 依하여 거듭 行하여지는 것이 宗教的인 禮拜 또는 典禮라고 불린다.

다시 말하면 典禮란, 하느님께서 그의 百姓에게 내리 주시는 은총과 하느님의 百姓인 共同體가 하느님께 感謝를 드리는 敬神의 禮拜를 內包하고 있다.

典禮(Liturgie)란 말은 희랍語 레이톨기아(Leiturgia)에서 왔는데, 이 희랍語는 다시 百姓(Laos)이라는 말의 형용사인 레이톤(Leiton)과 봉사 또는 일, 사업이라는 뜻을 가진 에르곤(Ergon)이라는 말이 합쳐서 이루어진 합성명사다. 따라서 레이투르기아(Leiturgia)라는 語源的인 뜻에서 생각할 때 그 말 자체의 一般的인 뜻은 「백성 혹은 군중의 공익이나 관심사를 爲한 奉仕」를 말한다. 또한 레이투르고스(Leiturgos)란 말은 이와 같은 봉사 내지 시사를 하는 사람 卽 司祭 自身을 意味하고 있다.

그리스도가 十字架 上에 죽음으로 因하여 神과 人間 사이에 和解의 犧牲이 되어 人類를 代身하여 贖罪함으로서 唯一한 仲介者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 最初의 司祭가 된 것이고 또 自己自身을 바친 것이니까 獻物 自體이기도 하다. (히브리서 9장 12절~15절)

뭇 바오로가 말했듯이 그리스도가 十字架 上에 죽음으로 永遠히 人間으로 부터 떠난 것은 아니다. 教會의 司祭가 世上에서 그리스도의 人間的 代理者로써 그리스도의 救世事業과 司祭權을 계속하고 있다. (히브리서 7장 24절) 그러나 이 世上에 있어서도 그리스도는 항상 大司祭이며, 한마디로 司祭라 함은 그리스도 自身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典禮에서 信仰人의 團體가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한 行動을 하게 된다.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를 因하여……………」(per Jesum Christum nostrum)라는 기도문이 典禮에 항상 되풀이 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한마디로 典禮라 함은 하느님의 百姓 卽, 教會의 共的 禮拜行爲로써 感謝와 犧牲, 祈禱와 祭事를 通하여 하느님에게는 榮光을, 人間에게는 救援의 聖寵을 가져오는 그리스도와 教會와의 司祭의 活動이다. 典禮行爲를 通해서 贖罪에 依한 救援의 혜택을 항상 새롭게 人類에게 주어지기 때문이다.

2. 典禮服

司祭와 그外 聖職者들이 典禮行爲를 爲하여 祭壇에 臨할 때에는 典禮服을 입는다. 司祭가 典禮服을 입을으로써 一般 平信者들과 區別되며, 神과 人間과의 仲介者로써 自己와 信者들을 爲하여 神前에 祭事를 거행하게 됨으로 神聖한 典禮服을 입지 않을 수 없다.

(1) 9世紀 以前까지의 典禮服

初期에는 平常服으로 미사를 올렸다가 3~5世紀(Rome 皇帝末期)에 上流社會 사람들이 입던 옷에서 出來되었다. 이러한 옷들이 서서히 禮拜에 使用되어 입게되는 反面에, 平信者들

은 차츰 입지 않게 되어 典禮服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3世紀 初에 Tertullien brâme, Clement d'Alexandra, Prevaudra라고 하는 主教들이 禮拜를 드리기 爲해서 단정하고 깨끗한 옷을 입어야 한다고 했다.

4世紀 末경에는 聖 Jerôme은 舊約聖書에 의하여(출애굽기 28장) 거룩한 神秘의 祭사를 올리기 爲하여 特別한 옷을 입도록 했다.

6世紀 初에 회칙 Liber pontificalis¹⁾(敎皇 Etienne 1^o)에서 「司祭들과 修道者들은 敎會에서 祝聖된 옷으로 奉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時期에 Rome에서 화려하고 莊嚴한 衣裳은 典禮에만 使用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 衣裳은 독특한 裁斷法으로 區別된 것이 아니라 平常時에 입지 않는 옷들이었다.

633년 Toléd 公議會에서 主教 表示는 Orarium(목도리와 같음), Anneau(반지), Crosse(십자가), 司祭들은 orarium, chasuble(祭衣), 副祭들은 orarium, 과 흰 Tunique을 敎品에 入口 規定했다.

(2) 9世紀 以後의 典禮服

a. 區 分

Carolingien(카롤링거 王朝)²⁾ 時代의 典禮家들은 典禮服의 種類를 다음과 같이 일거한다.

① 下衣(밑에 입는 옷)

L'amict(계 두포), L'aube(長白衣)

Le cordon(띠), La surplis(中白衣)

② 上衣(겉 옷)

La chasuble(祭衣), La chape(法衣)

La dalmatique(法衣), La tunique(中白衣)

③ 휘 장

Le manipule(手帶), L'etole(領帶)

Le pallium(大主教의 양털 띠)

④ 附屬物

Les sandales et les bas(산달과 양말)

Les gants(장갑), La mitre(主教冠)

9世紀 中엽에 Le rochet(素白衣)와 Le surplis(中白衣), 가나와 L'aube(長白衣)와 區別 되기 시작했다. 10世紀에는 主教만을 爲해서 산달과 양말, 장갑 rational(胸牌), 主教冠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 당시에 봉건적인 敎係階級制度에서 主教들의 勢力이 점점 強하여, 때로는 皇帝보다 더 優位에 있어 이러한 값진 裝飾品들이 나와 主教의 威嚴을 나타내었다.

12世紀에 처음으로 色에 對한 Canon³⁾(典文)을 볼 수 있다.

12世紀에 풍부한 典禮服을 創造하는데 極致를 이루었고, 그 後의 變化나 發展은 그때의 것을 바탕으로 하여 部分的으로나 裝飾品들만의 變化가 있을 뿐이다.

b. 材 料

밑에 입는 옷 L'amict, L'aube, Le surplis, Le rochet들은 lin(亞麻布, 린네르)를 材料로 使用하였다.

겉옷들은 soeries(비단)를 使用했다. Carolingien 時代에 Soissonn地方 主教인 Riculfe가 司祭들에게 비단 祭袍를 입도록 강요하게 되어, 비단 제의가 그 당시에 성황을 이루었다. 이러한 화려한 천들은 近東과 極東에서 들어왔고, 스페인과 씨실 섬에서 들어왔다. 8世紀 경에 이태리, 불란서 독일에서도 비단이 생산되었다. 10世紀에는 satin(사틴), 13世紀에는 damas (Damas 原産에 무늬를 짜넣은 피륙의 一種), 14世紀에는 Velous(우단)가 生産되었다. 이러한 천들은 宗教的인 意味는 전혀 없다.

C. 裝 飾

16世紀에 dentelles(레이스)의 기교가 나오기 시작했고, 長白衣와 素白衣 장식에 많이 使用되었다. 유감스럽게도 18, 19世紀에는 dentelles를 너무 많이 長白衣와 素白衣에 붙여 정중한 맛이 없어지고 중요한 것이 장식으로 因하여 나타나지 못했던 현상이었다. 겉옷에도 장식을 했는데 특별히 chasuble과 chape에 많이 했다. 좁은 galon에(장식줄, 線)과 넓은 galon으로 자수처럼 장식했다. 中世에는 그림을 그려 장식하기도 하고, 그림을 품위있게 수놓은 것과 잘 調和시켜서 장식해 놓기도 했다. 그리고 자주 rinceaux(唐草紋)[사진 4 참조]이나 史的인 人物을 畵으로 수를 놓아 품위와 부유함을 나타내었다. 16世紀 以後에는 그 裝飾의 目的과 技術적인 면에서 宗教的이었다.

13世紀 以後 典禮服의 改革을 要約하면 便利한 것을 追求하게 되어 차차 새로운 것을 받아 드리게 되므로, 장식하는데 重要的 역할을 한 값지고 重量감을 주는 velous(우단)와 brocarts(繡緞)들이 줄어들게 되었다.

14世紀 以後부터는 簡직하고 풍부한 모양들이 짧고 몸에 맞게 입는 모양으로 바꾸게 되었다.

1700~1850年代에는 典禮服이 變化와 장식으로 因해서 쇠퇴되었던 時期라 할 수 있다.

中世紀 後半紀(1930年頃)에 와서 그 모양과 천, 양식 등이 初期(12世紀 以前)로 돌아가서 그 아름다움과 상징의 意味를 다시 찾으려고 努力했다.

3 典 禮 色

初期 教會에서는 一定한 典禮色이라는 것이 아직 存在하지 않았고, 처음에는 聖書에 關聯하여 聖祭(거룩한 제사)에는 기쁜 뜻으로 白色이 使用되었다. 그러다가 차차 때와 目的을 위하여 一定한 色을 使用하게 되었다. 一年 중에 어떤 날은 특히 다른 날보다 돋보이게 하거나 또 어떤 날은 슬픔을 나타내기 위하여 黑色을 입게 되었던 것이다. 色의 選擇은 各 主教의 自由에 따랐기 때문에 곳에 따라 많이 달랐다. 그러다가 점차 教會가 典禮色을 確定하였다. 즉 白色, 赤色, 綠色, 紫色, 黑色이다. 色의 規定은 9世紀에 와서 色에 對한 典文의 內容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12世紀末에 와서 여러 色을 典禮에 使用하도록 規定이 確定되었다.

16世紀 以後 Rome에서 五色으로 規定지어 철저히 實行하게 하였다. 典禮 專門家들도 Rome에서 規定한 限界에 따라야 함으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지 못했고 그래서 個人의 취향에 항상 맞는 것은 아니었다. 분홍색은 임의로 선택 사용했다. 어떤 教會에서는 하늘色을 聖母祝日을 위하여 使用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색들(5가지)은 바꾸어 가며 使用할 수 있었다. 靑 全體가 主流色이어야 하고 어떠한 靑色(ton)이나 어떠한 Nuance도 금지되거나 規定되지는 않았다. 모든 色은 典禮的으로 使用할 수 있었고 美的으로, 장식적으로 사용했다. 金과 銀의 장식은 그 당시의 富를 나타내고 금으로 장식한 drap(털이 많은 靑)은 白色, 赤色, 綠色으로 대신할 수 있었고 銀으로 장식한 drap는 단지 白色으로만 대신할 수 있었다. 色과 그날의 使用 目的에 依하면 白色은 Epiphanie(主顯節)에 使用되는데 별들의 찬란함과 聖마리아의 순결의 상징인 결백이란 意味로 사용하고, 赤色은 사도들과 치명자들을 위한 것인데 이는 그들의 수난의 피를 상징하고, 성신강림 때는 赤色이 불의 혀란 상징으로 使用한다.

1) 白色 (La Blanche)

묵시록 (3장4절, 3장18절, 3장10절)에 기록된 것처럼 祭服은 白色으로 하고 또한 純潔의 色이기도 하기에 領洗者도 하얀 옷을 입었다. 祝日의 歡喜가 충분히 表現되어야 할 典禮에 있어서는 恒常·白色이 使用된다. 卽 主의 祝日, 原罪없으신 童貞 마리아의 祝日, 獻堂式 殉教者 以外の 聖人의 祝日 등에 이것이 使用된다. 이 白色은 銷蘭으로 바꾸어 使用할 수도 있다.

2) 赤色 (Le rouge)

赤色은 피(血)의 色이고 殉教의 피를 想起시켜 줄 境遇에 使用된다. 따라서 殉教者의 祝日이나 殉教의 記念日 등에 使用된다. 赤色은 또 灼熱과 사랑의 色이며 따라서 聖神降臨의 祝日을 위한 適合한 象徴的 表現이기도 하다.

3) 綠色 (Le vert)

이 色은 교황 Innocent 3世께서 「中間色」이라 하여 教會에서 특별한 祝日의 특징이 強調

안되는 보통 主日에 使用되고 있다.

4) 紫色 (Le violet)

이 색은 教會에서는 悔改, 苦行의 색으로 되어 있다. 이 색 自體가 과히 밝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아 悔改의 뜻을 잘 表現한다. 그래서 紫色은 대림절이나 四旬節, 大祝日 前日 등에 使用되고 있다.

5) 黑色 (Le noir)

이 색은 전혀 설명이 없고, 죽음과 슬픔만을 表現한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날이나 죽은 자의 典禮時에 使用되고 있다.

典禮色은 그 典禮의 基調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使用되는 典禮服의 색으로 그 典禮가 슬픔, 歡喜, 死生의 表現을 信者들이 곧 알게 된다.

6) 분홍색

대림 세계 주와 사순절 9째 주일에 紫色 대신 입는다.

Ⅲ. 各 典禮服의 細部的인 考察

1. L'amict(게두포 : 肩衣)

1) 史的 未來

amict를 anagolagium, amictus, fano, humerale, superhumerale라 불렀다. Rome의 첫번째 Ordo 4)에서 amict를 使用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교황은 lin(亞麻)으로 된 dalmatique 을 입기 前에 lin으로 된 tunique을 끈으로 맨 후에 이것을 입었다. 불란서 Carolingiens 時代에(11世紀) Rome에서 온 것으로써 abue(長白衣) 밑에 입었다.

교황 혼자만 fanon이란 이름을 붙이고 aube 위에 입었다. fanon은 한장의 비단이나 천으로 되었고 주름을 잡아 눌러 다녔다. 二重 colerette(장식 깃)는 Renaissance 때부터 입었다. 교황이 보통 amict을 입기는 15世紀 以後 부터이다.

10世紀에 amict에 금장식을 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amict를 머리에 두건처럼 썼다가 어깨에 걸치는 습관이 있는데 casque(투구)의 상징에서 온 것으로 믿고 있다. 變化의 理由는 分明하지 않고 Rome에서 amict-capuchon(두건 게두포)을 15世紀에 在俗司祭들에게는 폐지 되었으나 불란서에서는 1789年까지 몇몇 성당에서 고수하고 있었다.

amict는 古代 사람들이 추위나 땀을 막기 위해서 목과 어깨위에 paenula나 dalmatique 아래 입는 amictus focale palliolum이라 불리는 內衣에 더 가깝게 볼 수 있다.

2) 用 途

amict는 직사각형의 천인데 80~90cm의 길이에 60~70cm의 넓이이다. 양쪽 끝에 긴 끈

을 달았고 그 가운데 아주 잘 보이게 십자가를 하나 장식해야 한다. 만일 capuchon(모자) 모양으로 입으려면 장식구나 수 놓은 bande(띠)로 장식한다.

l'amict은 항상 l'aube 아래 입었고 어떤 경우에는 rochet(素白衣)와 surplis(甲白衣) 위에 입었다. 그것을 입을 때 머리 위를 스쳐 어깨위에 걸치고 soutane의 동정잇을 쓴다음 l'aube에 의해서 감추어 진다.

수도자는 흰두건(Capuchon)을 쓰는데 amict를 그 흰두건 위에 입는다.



〔圖 1〕 L'amict가 긴 모양으로 祭衣 위에 부착했다. 刺繡로 裝飾하고, 祭衣와 같은 色으로 만들었다. 祭衣에 必要한 補充品이 되었다. (↑)

〔사진 2〕 Paris의 Notre-Dame 성당의 南쪽 문에 石灰石으로 彫刻한 近代作品. 聖 Stefan의 모습이 다. (→)



2. L'Aube(長白衣)

1) 史的 由來

l'aube나 lin의 tunique은 첫번 Ordo 이후에 secretarium에서 교황이 입은 첫번째 옷이다. 불란서에서 흰색이란 이유로 camisia나 혹은 aube란 이름으로 amict 다음에 입었다.

aube는 4世紀에 주로 속옷으로 입던 lin으로 된 소매가 긴 tunique에서 出來된 것이다. rochet와 surplis가 나타날 때까지 aube은 모든 사제들이 共通으로 입었다.

아마포(亞麻布)로 되었고, 발꿈까지 내려오고, 허리선까지는 좁았다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차차 넓어진다. 직사각형의 팔 아래서부터든지 허리선부터 앞뒤판 사이에 주름을 잡았다. 소매는 어깨부분이 아주 넓고 손목은 좁게했다.

l'aube는 자루모양으로 크기가 사방으로 꼭 같으면서 주름을 많이 잡은 것이 15世紀末

에 나타났다.

l'aube가 10世紀에 밀단과 소매, 목 둘레에 금이나 비단줄로 장식했다. 값진 천이나, 수를 놓고, 금을 입히고 보석을 붙이기도 했다. 이러한 장신구가 유행한 것은 12世紀였고 16世紀에는 dentelles(레이스)가 그 代用으로 사용하기 始作했다.

2) 用 途

l'aube는 원래 자루모양의 tunique으로 소매는 좁고 soutane을 가리기 위해서 충분히 길며, 걸을 수 있고 무릎을 꿇기 위해서 폭도 넓다.

l'aube는 면실로 짠 것이어야 하고 실로 짠 dentelles로 밀단과 소매단에 장식하는데 레스나 수 놓은 Bande(띠) 중에 하나를 사용할 수 있다. 즉 4개의 직사각형의 장식을 양소매 끝에 붙이고, 둘은 제일 중요한 면인 밀단에서 조금 위에 붙인다.

實質的으로 aube는 高位 聖職者들의 옷이며, 엄숙한 옷으로 되어 있다. aube는 미사, 장엄행렬, 거룩한 축성 때 chasuble, dalmatique, chape 아래 입는다.

3) 象 徵

l'aube는 마음의 순결을 상징한다. (묵시록 3장4절, 3장18절, 6장11절)

「聖業의 어린 양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가 司祭의 마음을 淨化하고 聖華시켜……」라는 기도문에서 볼 수 있다. (adoc, 6장11절, 7장13~14절)

3) Le surplis(中白衣)와 Le rochet(素白衣)

surplis와 rochet는 tunique의 一種으로써 다리 중간쯤 내려 오고 surplis는 소매가 넓고 rochet는 소매가 좁은 것이 특징이다. surplis를 축소한 것을 la cotta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몸의 중간까지 오고 소매는 팔꿈치까지 온다. rochet와 cotta는 dentelles로 장식하는 것이 보통이다.

surplis는 12世紀에 Rome 밖에서 먼저 나타났다.

動物가죽으로 만든 pelisse(털을 댄 외투) 위에 super-



[사진 3] Rome에 있는 13世紀의 壁畵. 聖 Silvestre와 두 동반자가 Constantin 皇帝에게 聖 Pierre와 Paul의 초상화를 주는 모습. 목둘레와 소매끝에 수놓은 白衣(aube)



[사진 4] 이탈리아에서 가장 보편화된 aube로 밀단과 소매끝에 10cm 넓이의 Rinceaux 무늬.

pelliceum이라 불리우는 것을 입었다. (古代 敎會에서 aube를 pelisse 위에 입었는데 추운 북쪽 지방에서는 불가피한 것이다.) 처음에 surplis는 간단한 합창단의 옷이었다가 l'administration des sacramento(七聖事 거행)을 위해서 12世紀부터는 aube를 대신할 수 있었다. 15世紀頃에는 길이가 rochet처럼 짧아지고, 넓은 소매가 물결같은 모양의 날개같은 것이나 간단한 장식으로 변했고 그렇지 않으면 없애 버렸다. surplis는 司祭들의 共同 着衣이고, 主教들이 첫번 삭발례 때 덮어 입는다.

rochet는 rocaus의 축소형. (rock, robe, habit)

rochet는 13世紀에 독일과 영국에서 준 이름이다. 15世紀까지 Rome에서 camisa roman이라고 불리어졌고, 교황과 부제들이 aube 밑에 입었다. Rome 밖에서는 모든 聖職자들이 이것을 입었고, camisa는 제4회 Latran 공의회에서 존엄한 表示로써, 在俗 主教들에게도 이것을 입도록 規定되었었다. 七聖事を 거행하기 위해서는 surplis를 대신할 수 있었다. rochet는 특전과 전통을 위해서 추기경과 주교들, 수도원장, 참사원들의 전용이었다.

3) Le cordon(띠)

1) 史的 由來

古代 女子들이 옷을 입을 때 꼭 띠가 必要的 것처럼, 男子들이 옷을 입는데도 必要不可缺한 部分이다. (그 당시에 discintus의 行용어로서, 띠를 띠지 않는 사람은 비릇이 없는 사람으로 취급한다). 교황 Célestin이 pallium을 입을 때 띠를 띠는 불란서 主教들처럼 다시 띠를 매기 始作했다.

古代 cingulum은 가죽이나 천으로 된 띠인데, 두 끝을 매듭을 지어 놓은 bande나 boucle(고리)로 되어 있었다. 中世의 cingula(가죽띠)들은 값진 천의 bande나, 두꺼운 술(galon)이었다. 1295년 교황정 비망록에 이 띠가 있었다.

교황이 장엄미사를 봉헌할 때 subcinctorium이란 특별한 모양으로 장식된 그의 띠를 使用했고, 그것은 manipule(手帶)의 모양으로 금으로 수 놓아 장식하고 한쪽 끝에는 어린 양, 다른쪽은 십자가를 장식한 것을 사용했다. 이러한 장식들은 10世紀 主教들에게 특전으로 사용되다가 16世紀부터 하지 않았다.

2) 用 途

띠는 항상 aube와 같이 使用하는 必須的인 것이다(사진 4 참조). 재료는 비단, 木綿 또는 毛織으로 되고, 항상 흰색이어야 하는데, 혹은 그 위에 색을 장식하거나 끝에는 술이나 고리로 장식한다.

3) 象 徵

매기하고 있다는 表現이다. (허리에 띠를 매고, 지팡이를 짚고,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

aube의 부분 것을 띠로 매는 것은 aube가 사랑으로 감싼다는 意味가 있는데, 그것을 매어 지속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또는 허리를 매는 것은 自然의 本能을 지배할 수 있는 은총을 구하는 것이다. 즉 禁慾生活을 意味한다.

4) La Chasuble(祭衣)

1) 史的 由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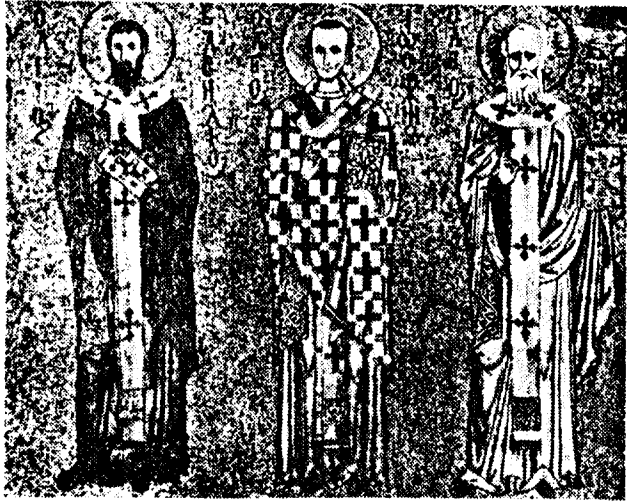
古代 Rome인들이 입던 paenula에서 由來된 것이다.

paenula는 겨울에 외투로 입기도 하고, 여행할 때 입기도 하였다. 1~3世紀에는 은은한 色調의 옷이었고 점차적으로 la toge(古代 Rome의 法衣)를 代用하게 되었다.

4世紀에 La Gaule(갈리아 地方)에서 미사 때 입었다.

d'Amphilbalus, Planeta, Casula, (종모양)

Infula (10世紀)란 이름으로 입기도 했다. 7世紀에 가서 chasuble은 可祭의 전용이 되었고 信者들은 입지않게 되었다.



[사진 5] 이태리 Cefalu Cathèdrale 성당의 mosaïque. 1148년 이후 그리스와 Rome 사제들이 Chasuble과 Pallium(양털)을 tunique 위에 입고 있다.

2) 모 양

5~6世紀 mosaïque에서 보면 둥글고 큰 외투로 말이 덮히도록 내려온다. 머리를 넣고 뺄 수 있도록 둥글게 구멍을 내놓고, 몸 全體를 감싸서 두팔 모두 보이지 않게 하던가, 오른팔 하나만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주로 색은 어두운 색이다.

13世紀까지 이와 같은 종모양으로 1.6m의 앞 뒤 옆이 같은 길이였다.

14~15世紀 동안은 chasuble이 그래도 풍성하고 藝術的[사진 6,7]인 가치가 있는 아름다운 緞子 가진 종모양을 유지하다가, 그 크기와 모양이 편리한 面으로 變하기 시작했다. 그 改革은 빨라 16世紀 末에는 거의 오늘날 使用하는 것과 같았다.

특히 옆線에서 짤라서 오른 팔을 나오게 하고, 앞과 뒤도 줄어들어 17世紀 末경에는 裁斷도

變하여 처음 보다 半의 크기로 줄어 들었다[사진 7].

現在의 chasuble은 修道者들의 앞, 뒤에 드리우는 것처럼 드리워지고, 팔은 덮지 않고 머리를 넣고 뺄 수 있게 구멍을 내 놓았다. 그러한 모양에도 4가지 종류의 모양으로 區別한다.

① Rome式 chasuble-

1.3m의 길이, 75cm의 뒷넓이, 55cm의 앞넓이로, V字 모양의 평범한 것이다. 뒤에는 기둥모양의 bande를 장식하고, 앞에는 十字架,

목 둘레에는 술을 달았다(사진 8).

② 불란서式 chasuble

Rome式 보다 조금 더 넓고, 더 길다. 머리내는 부분을 옆으로 길게 파고 어깨는 10~15cm의 넓이만 남겼다.

③ 독일式 chasuble

Rome式 보다 조금 더 길고, 목 둘레가 둥그랗거나 타원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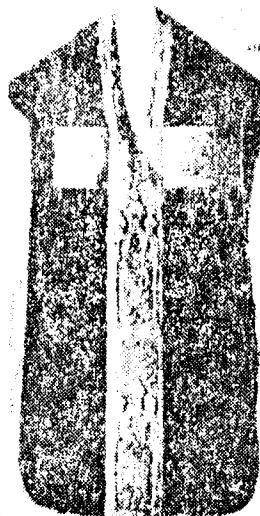
④ 스페인式 chasuble

모든 부분이 더 웅색하고, 앞뒤면에 기둥 모양의 bande를 裝飾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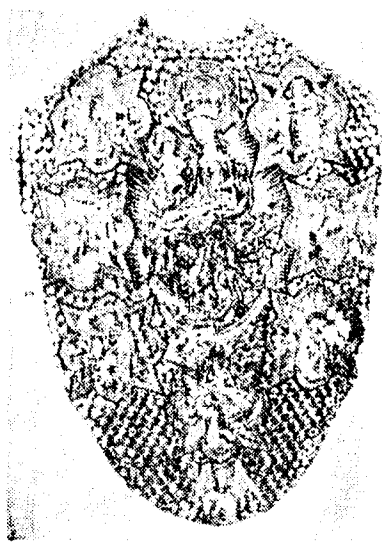
19世紀 중엽부터 主教들의 典禮法規와 象徴主



[사진 6] 유스티니아노(Giustiniano) 황제와 그 一行. 이태리 Ravenna의 聖Vitale 성전에 있고, 6世紀의 Mosaïque이다.



[사진 7] 이태리 Vedeseta의 聖 Antoine 修道院에 있는 수놓은 Chasuble. 수놓은 十字架가 陽刻으로 人物을 主題로 한 것.



[사진 8] Upsala Cathédral에 있는 수놓은 Chasuble, 15世紀 Stockholm에서 gothique로 으로 만든 것. 가운데는 Madonna와 예수아가 주세로 聖母 마리아의 生活을 화려하게 가장자리에 수놓은 것.

義와 一致하여, 다시 넓고 부드러운 모양을 使用할 수 있게 되었다. 儀式을 거행할 때 팔 위에 걸어 올리도록 規定되었다[圖 2].

3) 用途와 裝飾

chasuble은 미사儀式에서 義務의으로 입어야 한다. 또한 미사와 연관되거나, 유사한 儀式에서도 입는데, 그것은 聖職의 品位를 나타내는 唯一한 옷이기 때문이다.

贖罪時期 동안 미사 때는 입지 않는다. 副祭와 次副祭들은 司祭가 미사동안 움직일 수 있게 chasuble의 앞을 걸어 올려 주고, 次副祭는 讀書를 읽으러 갈때 놓고 가고, 副祭는 聖書 읽을 때 놓고 간다. chasuble은 순수한 비단으로 만들도록 9世紀에 Soisson의 主教 Riculfe 가 그의 司祭들에게 規定지었다.

14~15世紀에 와서는, 비단과 綿, 혹은 毛가 섞인 것도 허용하여 지금까지 내려왔다.

裝飾은 상당히 多樣하였다가, 13世紀 후부터 一定하게 規定을 했다.

첫째 앞뒤 面에 croix-fourche(갈래진 십자가)를 裝飾했는데, 15世紀에 이 十字架가 對角의 十字架로 대신하고, 앞에는 기둥모양을 裝飾했다. 둘째로 앞 뒤 面에 양쪽으로 기둥모양을 裝飾하고, 앞面의 기둥모양 사이의 윗 部分에 같은 넓이의 기둥 bande를 가로질러 놓고, 목 둘레에는 같은 色의 좁은 bande로 두른다.

4) 象 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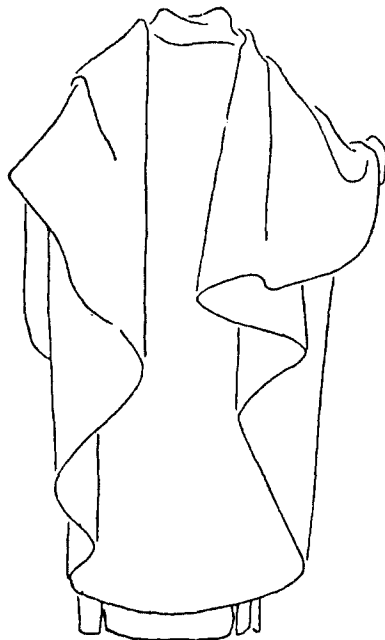
세가지의 象徴이 있는데, 사랑의 옷, 9世紀에는 부드럽고 가벼운 그리스도의 멍애라 했고, 12世紀에는 純潔의 옷이라고 했다.

5) La Chape(聖職者의 法衣)

1) 史的 由來

chape이 나타나기는 851年, 교황청 비망록에서 볼 수 있고, 목둘레의 모양의 차로 chasuble과 다른 점을 지적했다.

chape는 lacerna란 古代에 입던 외투를 典禮에 使用하기 시작했는데, lacerna란 것은 修道者들과 司祭들의 외투였다. 9世紀 初에 큰 修道院에서 祝日에 값진 lacerna [圖 2] 儀式을 거행할 때 chasuble을 어깨 위로 걸어 올린 모습



chape은 라틴語로 cappa pluviale라 하는데, chape는 8世紀에 외투에 붙인 '모자의 이름이고, Pluviale은 語源的으로 우비란 뜻인데 10世紀에 와서 우비란 말은 없어지고 典禮語가

되었다.

chape가 생겨서 讀經 때에 올라갈 때 chasuble을 벗어 야 하는 일을 덜어주게 했다. 10世紀에 chape를 많이 입 게 되었고, Rome에서는 12世紀에 다른 典禮服처럼 직접 使用하게 되었다.

2) 모 양

chape의 모양은 다양하지 않다. 그러나 chapron(모자)의 모양은 많은 變化가 있었다. 처음에는 모자 모양이 었던 것이, 차츰 크기가 줄어들어, 13世紀에는 아주 적은 三角形의 친만 단계 되었다. 14世紀부터는 커지기 시작하여, 방패모양이다가[사진 8] 다시 半圓形의 크기로 되어 어깨를 덮었고, 18世紀에 와서는 半身까지 내려왔다.

3) 用途와 材料

chape는 장엄하고 화려한 옷이라, 원칙적으로 vêpres (만과) 때와 laudes(새벽 성무일도)때 장엄 禮節에 입었고, 祝盛과 장엄미사 때도 입는다.

chape는 主教 以上の 聖職者가 입고, 公式的으로는 아무 象徴的인 意味가 없다.

chape는 1.4~1.6m의 半圓形에 chapron(모자)를 直線에 달고, 金실, 은실로 緋를 놓아 裝飾하고, 앞가슴 部分에는 친으로 된 끈이나 고리로 固定시키는데, 主教만은 장방형의 plaquette(금 속판)나 pectoral(主敎의 十字架)의 型式으로 고리 단추를 달 수 있다. 그리고 더욱 값진 친들로 만들고, 적은 종 모양이나 술로 裝飾했다. 中世의 chape는 緋나 金, 銀실로 모자에만, 혹은 全體에 裝飾하였다. 13世紀의 chape의 모양이 오늘날에도 거의 같은 모양이다. [사진 9]

4) 附加物

① Le mantum. (pluviale, rubrum, cappa—rubra)

中世 Rome 敎皇의 威嚴을 나타내기 爲하여 입었던 것으로 아주 긴 chape이다. 敎皇이 걸어가기 爲해서는 걸어 올려야 정도다.

chape과 같은 경우에 使用하고, 두가지 색 뿐인데, 白色과 赤色으로, 赤色은 敎皇만 입을 수 있다.



[사진 9] Albrecht Dürer의 그린. 三位一體를 경배하는 광경. brocart chape과 mitre를 쓴 主敎와 추기경.



[사진 10] Giacomò Manzù의 彫刻으로 Vatican의 聖 Pierre 성당 門의 一部分. mafalda란 양털로 된 pluviale.

② La cape (cappa magna)

cape는 몸全體를 감싸는 외투로서, 긴 꼬리가 있다. 모자가 달려 있고, 저울에는 hermine(흰담비)로 되어있고, 여름에는 cramoisi(진紅—主教色)이나, ecarlate(紅—추기경色)가 있고, 등에는 固定된 주름이 잡혀있다. 추기경의 cape는 원래 물결무늬의 紅色인데, 참회의 날에는 보라色을 입는다. 主教의 것은 항상 보라色이고 毛로 되어있다.

cape는 재판권이 있는 主教가 입고 主教冠과 같이 입을 수 있으나 聖事 때에는 입지 않는다

③ L'aumusse

12世紀에는 모자였던 aumusse가 裝飾 깃으로 變했고, 털이나 보드라운 킨으로 만들어져 있다. 끈도 없이 앞이 터 있고, 어떤 참사원들은 팔에만 걸치고 다니는데 그의 品位를 나타낸다.

④ La mozette(camail)

아주 적은 모자 모양의 裝飾 깃으로 紅, 紫, 黑色이 있는데 입는 사람의 品位에 따라 色을 맞추고, 또한 典禮色에 맞추어 입기도 한다. mozette를 입은 사람은 재판할 수 있는 高位聖職者라는 것을 表示한다.

이러한 것들은 chape와 같은 모양으로, 高位 聖職者들의 걸옷으로 典禮와 直接關係는 없다.

6) La dalmatique(法衣)

1) 史的 由來

3世紀에 儀禮服이라고 해서 지체있는 사람들이 亞麻 tunique과 걸옷 사이에 입는 화려한 옷으로 dalmatique라 한다. 4世紀에 Rome에서는 敎皇과 그 副祭들만이 이 榮光의 옷을 입을 수 있었다.

古代 Mosaïque에서 화려한 dalmatique을 많이 볼수 있다[사진 11]

5世紀에 Milan에서 主教가 입었고, 6世紀에 Ravenne에서 主教와 그 부제들이 Rome의 허락없이 입었다.

9世紀에는 모든 主教와 부제들이 dalmatique을 입었고 때로는 司祭들도 입었다.

2) 用 途

dalmatique은 Rome 밖에서 먼저 시작해서 입었고, scapulaire같은 모양으로 머리가 들어갈 수 있는 구멍과 두



[사진 11] Moscou, Kremlin博物館 所藏. Sakkos라 하는데 dalmatique과 같다. 人物을 主題로 하고, 목둘레와 소매끝에 구슬로 수놓았다. Nikos 族長의 것.

날개가 판 위에 내려졌다. Rome에서는 아직도 소매가 단힌 tunique을 추기경이나 主教의 장엄미사 때 chasuble 위에 입는다. 그 후 다시 모든 聖職者들과 부제와 차부제도 입었다. 贖罪禮節에는 입지 않는다.

3) 모양과 色

Carolingien 時代 以前에 dalmatique은 흰 tunique으로 발목까지 내려오고, 소매가 없게 생겼다.

두개의 줄무늬가 紫色이나 紅色으로, 앞뒤 어깨에서 밑에까지 내려오고 같은 넓이로 소매 끝 部分에도 단다. [사진 12] 술 裝飾은 주로 양 옆에 했고 8世紀 后부터는 줄무늬 위에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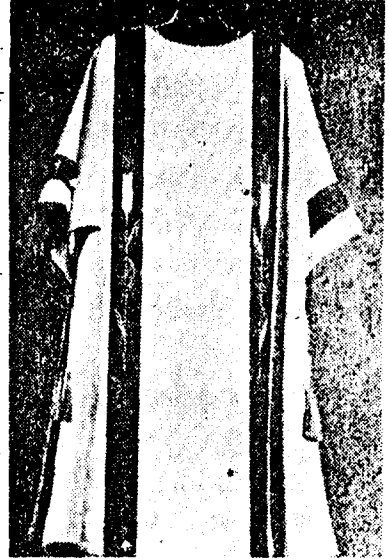
비단 dalmatique은 9世紀에 Rome에서 입기 시작해서 13世紀에는 모든 곳에서 입게 되었다.

보통 白色을 使用하다가, 12世紀 부터 Canon에서 定한 色에 영향을 받아 典禮色을 입게 되었다.

12世紀 以后부터 dalmatique의 크기와 모양에 變化가 와서, 16世紀부터는 소매를 갈라 놓고 끈으로 매든가, 단순한 날개처럼 變했다. 그리고 줄무늬가 점차 자취를 감추고 裝飾하는데 定해진 規制도 없어졌다.

4) 象 徵

白色 dalmatique에 赤色の 줄무늬는 기쁨과 하례(賀禮)를 意味하고, 定義의 옷이란 意味를 가진다.



[사진 16] 現在 가장 보편화된 dalmatique. 두개의 紫色 줄무늬와 소매끝에도 장식했다.

7) Le manipule(手帶)

1) 史的 由來

Le manipule은 典禮服의 한 部分으로서, manipulus(8世紀), mapula (10世紀까지), sudarium 등의 이름으로, 9世紀에 모든 司祭, 副祭, 次副祭, 聖職者들이 使用하였다.

봉헌하고 받아드리기 爲해서 使用했던 손수건이었고, 4世紀에 집정관들의 裝飾用으로 使用했던 에티켓 손수건을 모방한 것이다.

12世紀에 모든 修道者들도 aube(長白衣)와 같이 使用했다.

2) 用途, 모양, 裝飾.

manipul을 使用하는 聖職者는 下位 聖職者(神父, 副祭, 次副祭)들이고, chasuble과 같이

使用하며, 오직 미사 때만 使用한다. manipule은 천으로 만들어진 bande인데 끝 部分이 넓어진다. 1m의 길이와 10cm 内外의 넓이이고, 3개의 十字架를 裝飾하는데, 가운데 있는 十字架는 의무적으로 하고, 양쪽 끝에 하나씩 장식한다.

10世紀에 벌써 수를 놓았고, 술장식을 달았다. 10~13世紀에 끝이 사다리꼴 모양으로 넓어졌다가 16世紀에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다. 17世紀 末에 와서는 아주 짧고 좁은 manipule이 아니고 삼이나 주머니 모양으로 크게 되어 典禮服의 한 部分品이 되었다.

3) 象 徵

manipule은 좋은 作品의 結實을 意味하고, 때로는 눈물과 苦痛 안에서 完成한다는 意味가 있다. 卽 성영에서(125장6절)「뿌릴 씨를 들고 가면서 그들이 통곡하며 가고 있사오나, 저희 곡식단을 들고 돌아온 때에는 그들이 용약하며 돌아 오겠나이다」와 같이 勞動의 어려움과 그 結實을 意味한다. [圖 3]



8) L'etole(領帶)

1) 史的 由來

étole은 4世紀에 東洋에서 orarium이란 이름으로 나타났다. étole은 古代 女性들이 입던 stola나, 유대인들이 기도 때 입던 사제의 외투에서 왔다는 說도 있으나, 古代 orarium에서 온 것이라 본다. orarium이란 손수건(serviette)으로 東洋에서 와서 화려하였다.

563년 스페인에서 副祭의 表示로 orarium이 있었고 633년에는 主教와 司祭들이 使用했다. 敎皇은 étole을 걸치지 않고 pallium을 입었다.

Carolingien 時代에 pallium과 étole을 共同的 것으로 改善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圖 3] manipule과 étole을 입는 方法

2) 用途와 모양

étole은 主教, 司祭, 副祭만이 使用하는데, 副祭의 étole은 왼쪽 어깨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걸친다.

司祭들은 aube와 같이 양쪽 어깨에 étole을 걸친 다음 오른쪽이 왼쪽 위에 오도록 가슴 위에서 겹치고 cordon(띠)으로 고정시킨다. surplis(中白衣)를 입을 때에는 양쪽 끝이 곧바로 내려오게 걸친다. 그것은 항상 主教들의 복장이다.

étole은 aube, surplis, rochet 위에 걸치고, 미사, 축성, 장엄행렬 또한 장례식 때도 걸친다,

étole은 2.6m의 길이와, 10~20cm의 넓이의 천으로 만들어졌다. 대개 典禮色으로 chasuble과 같은 色과 같은 천으로 만들어졌다. 의례적으로 3개의 十字架와 술장식을 한다.

3) 象 徵

- ① 부드럽고 가벼운 그리스도의 멍에.
(Amalraire가 부치고, 마태복음 11장 30절)
- ② 하느님에 의하여 주어진 흰옷. (은총을 입는다는 意味)
- ③ 永遠한 옷 (9世紀).

9) Le pallium(敎皇 어깨에 두른 흰털)

1) 史的 由來

pallium의 由來는 分明하지 않으나, 조금 신빙성이 있는 것은 4~5世紀頃 皇帝에 의하여 敎皇에게 주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pallium은 orarium이라고도 불리우는데 Rome와 Ravenne의 [사진5 참조] mosaïque에서와 Rome의 비망록에서 보면 6世紀 末에 나타났다.

2) 모양, 用途, 裝飾

古代 mosaïque에서 보면 아주 긴 목도리로 8~9cm의 넓이의 흰색으로 되었다. 끝에는 十字架와 술로 장식했고, Y字 모양이 11世紀 初에는 T字꼴으로 바뀌었다. 聖 Gregoire 時期에 pallium이 미사 때 입는 것으로 典禮에 직접 使用되었다. 그 당시의 모양이 거의 지금과 같다.

흰색 위에 6개의 검은 十字架가 있고, 둥근 곳에 4個, 양쪽 드리운 곳에 하나씩 장식한다. 앞 뒤 양쪽 어깨 위에 끈 구멍이 있는데 그것을 통하여, 값진 돌을 박은 金色의 3개의 핀으로 pallium을 찻는 것이 아니라 chasuble을 찻어 움직이지 않게 한다. pallium은 1月 21日 (聖아네스 축일)에 축성된 두마리의 어린 양털로 만들어져서, 6月 28日 (聖바오르의 고백축일)에 敎皇에 의하여 축성된다. pallium은 敎皇에 의하여 主教들에게 하사된다.

3) 象 徵

敎皇의 充實을 意味하며, 從徒의 權限으로 福音을 傳하고 聖體聖事를 실시할 수 있다.

10) Les Sandales et les bas(산달과 양말)

1) 史的 由來

6世紀에 敎皇과 그 副祭들은 특별한 모양의 신을 신었는데, 그것을 campagi라 하고 양말은 udos라 한다. [말구복음 6장 9절] campagi와 udos가 可祭들에게서 온 것이 아니고, 5世紀 末 元老員이나 후작들이 Rome에서 뿐만 아니라 Milan과 Ravenne에서 高位聖職者들에게

준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

9世紀에 그 산달의 이름이 나왔고 모든 聖職者들이 campagi와 udos를 신었다가, 10世紀에 와서는 主教만 신게 했다.

2) 모양과 用途

典禮양말과 신발은 추기경, 主教, 수도원장들이 신고, 교황청의 高位聖職者들이 장엄미사 때만 신었는데, 장례나 聖金요일은 신지 않는다. 그래서 典禮色대로 산달, 양말이 있는데 단지 검은 色만 없다.

13世紀부터 비단실로 양말을 짜는데 흰색이어야 하고, 14世紀부터는 다른 色을 使用했다. campagi는 가죽으로 만들었고 열려있는 산달인데, 13~14世紀에는 닫혀있는 여러 모양의 산달이 나왔다.

13世紀에는 가죽 위에 비단으로 짜고 장식들은 항상 값진 것이었다. 산달의 모양은 덧신의 모양과 비슷하고 뒤꿈치가 없다. 金으로 수를 놓고, 술장식을 하는데, 敎皇산달에만 十字架를 새긴다. 양말도 비단으로 되어있고, 그 비단 위에 금박을 박았다. 양말 모양은 아주 크고 넓다.

主教가 양말과 산달을 신을 때 禮讚을 읽기 前 기도하듯이 기도를 드린다. 「이사이야 예언자의 입술을, 불붙는 솟으로 경건하게 해주시는 전능하신 천주여 당신의 복음을 기록하게 전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깨끗이 해주소서」.(Poantificalis)

11) Les gants(장갑)

2) 史的 由來

9世紀 후반기 以前에는 典禮禮式에서 장갑이 使用되지 않았다.

12世紀에 Honorius d'Autun이 종도들을 본받아 많이 使用했다. 오래 前부터 발을 장식했던 것처럼 主教 손을 장식한다는 目的으로, 典禮服의 한 部分으로 받아들였다. 화려한 장갑을 오래동안 使用했고, chape를 使用할 時期에, 장갑도 使用하였다. 主教들만 끼던 것이 1070년에 수도원장도 끼었다.

3) 모양과 用途

10~12世紀까지 비단실로 짰다가 차차 줄어들고, 中世에 와서는 毛糸로 장갑을 짰다. 처음에는 흰 장갑 뿐이던 것이 12世紀부터 色있는 장갑이 나타났다. 장식은 항상 손등에 했는데, métale이나 철보 등으로 장식하다가, 中世에 와서 수놓은 것으로만 장식하였다.

主教 추기경, 高位 聖職者들이 낄 수 있고, 장엄미사 때 使用하는데, 장례 때나 聖金요일은 使用하지 않는다. 미사 동안에도 봉헌 禮節 때까지만 使用한다.

3) 象 徵

장감은 순결한 마음과 업적의 象徵이 있고 또한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죄를 보상하기 爲해서 속죄자처럼 된다는 意味가 있다.

12) La mitre(主教冠)

1) 史的 由來

mitra, infula, tiara라 부르고, 교황칭 비방록에서 보면, 11世紀에 敎皇 Léon 9世에 의하여 Rome에서 mitre를 使用하게 되었다. Rome의 mitre는, 원래 敎皇이 主教에게 하사함으로써 쓰게 되는데 다른 裝飾品들처럼 mitre도 典禮의이 아닌 것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다.

camelaucum이라 불리우던 모자로서 8世紀 敎會 밖에서 使用하던 것으로 敎皇 Constantine (708~712)에 의해서 Constantinople에 들어왔고 王冠을 물려 주는 것처럼 祝聖式 後에 새로운 敎皇에게 주어졌다. 圓錐形[사진 13] 높은 bonnet로, 9世紀에는 典禮 모자가 아니었고 Rome에서 敎皇만 쓰던 것이 10世紀에는, 主教들도 쓰기 시작하면서 典禮모자로 使用하게 되었다. 1150年 前에는 다른 부속품들처럼, 主教들만의 전용이었던 것이, 中世에 와서 高位 聖職者들이 경우에 따라서 쓰게 되었다.

2) 用途와 裝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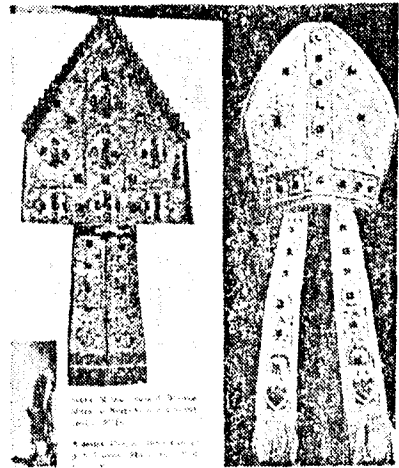
mitre는 主教, 추기경, 수도원장, 고위성직자들만 使用할 수 있는 主教, 추기경 儀式에서만 使用하도록 되어 있다. 경우에 따라 다른 때도 使用할 수 있으나, 3개의 mitre를 써야 한다.

mitre는 圓形의 모자인데 꼭대기에서 두개의 끝으로 끝난다. 뒷면에는 두개의 bandelettes(띠 모양)나 fanons이 목위에 내려뜨려진다. [사진 14]

主教儀式에서 使用되는 3가지 종류의 mitre가 있다.



[사진 13] 불린식 Reims의 Notre-Dame 성당문의 彫刻, 初期圓錐形의 mitre.



[사진 14]

(左) Destra라 부른다. 聖 廟 Lorenzo의 대성당에 있다. Leone X의 것.

(右) Sopra라 부른다. Bologna의 Metropolitan에 있고 16世紀 聖, Beato Niccolò Albergait mitre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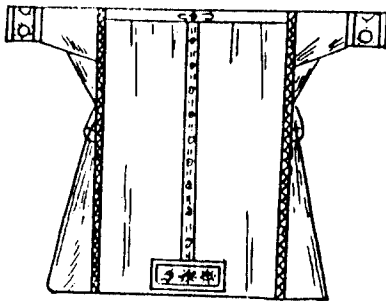
- ① 고급 mitre는 금이나 銀으로 만들어서 수나 보석으로 장식되었다.
 ② mitre orfrayée(法衣의 모자)는 흰 비단으로 짠데, 금으로 수놓거나 다른 장식없이 금머로만 장식한다.
 ③ 단순한 mitre는 흰 damas나 흰 비단으로 되었고, 빨간 줄장식이나 fanons을 달았다. 色이 있는 mitre도 만들 수 있다.

3) 象 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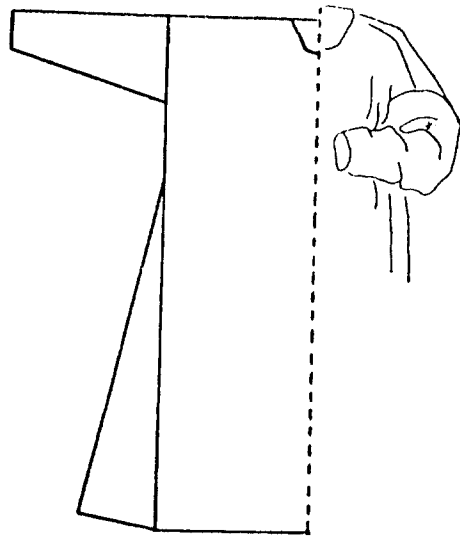
mitre는 구원의 투구와 古代大司祭 Aaron 王冠의 神秘를 상기시키고, 두개의 꼬죽한 것은 舊約과 新約복음서에서 나오는 moise(모세)의 머리에서 나오는 두줄기의 빛을 意味한다.

IV. 裁斷法(La cou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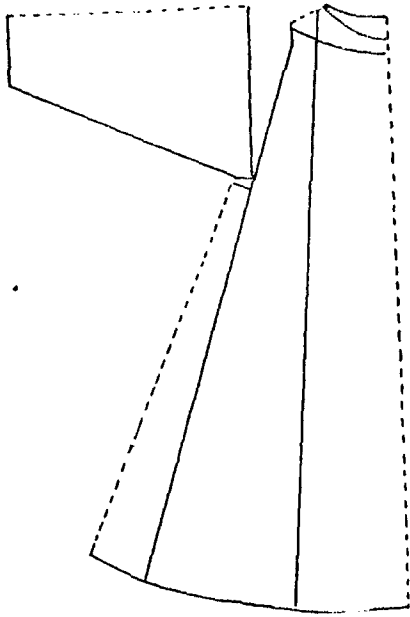
1. L'aube(長白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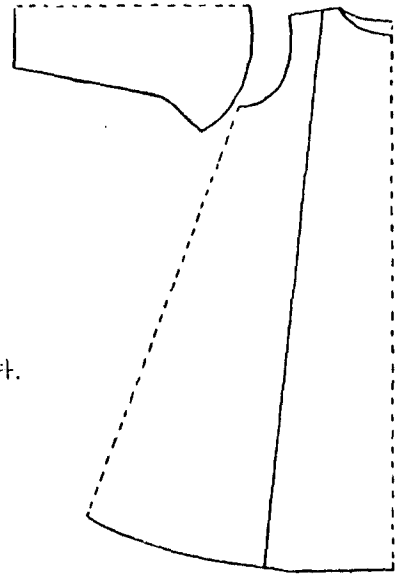
[圖 4] 古代 Rome의 tunica. aube가 tunica에서 由來된 것이다.



[圖 5] 古代 服裝의 四角形에서 發展한 aube와 裁斷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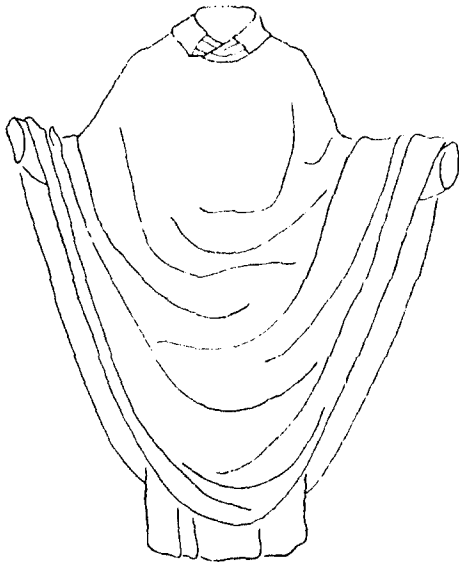
[圖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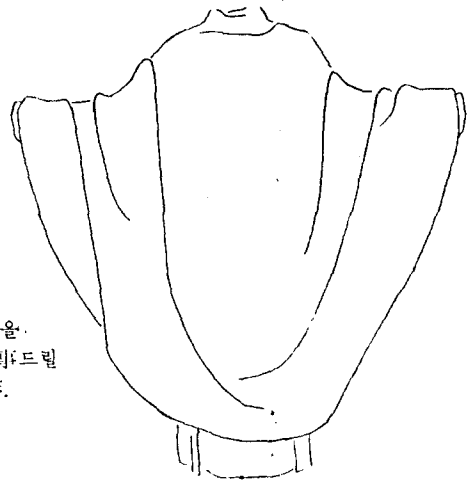
[圖 7]

← →
 簡潔한 aube의 裁斷型.
 sulplis와 rochets의 裁
 斷도 이기에서 應用한다.

2. La chasuble(祭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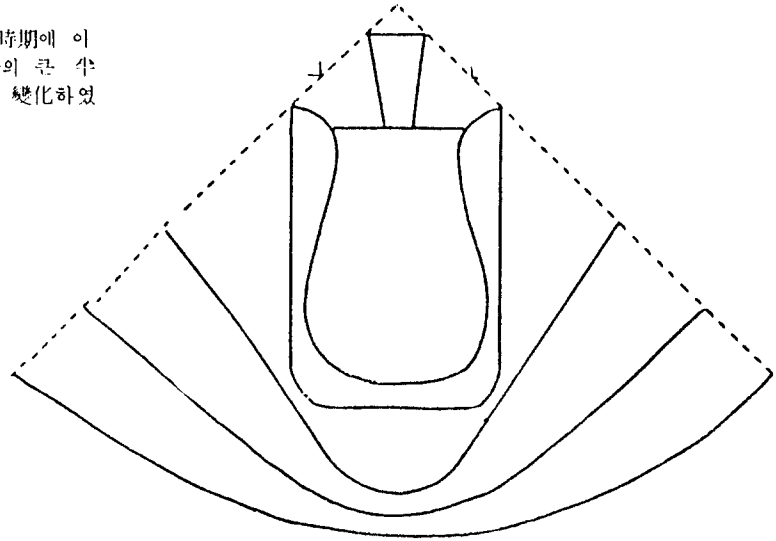
[圖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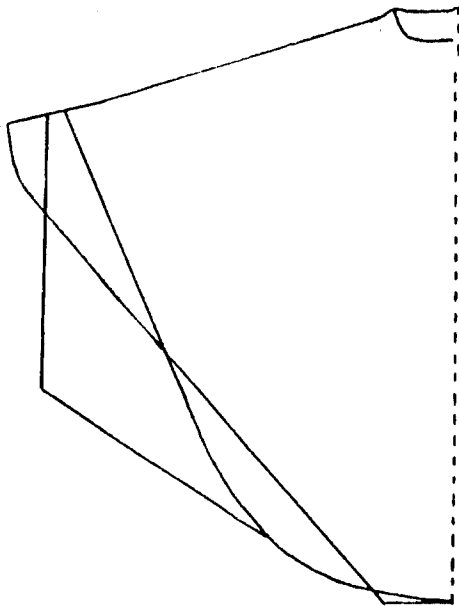
[圖 9]

Chasuble을
 입고 祭事드릴
 때의 動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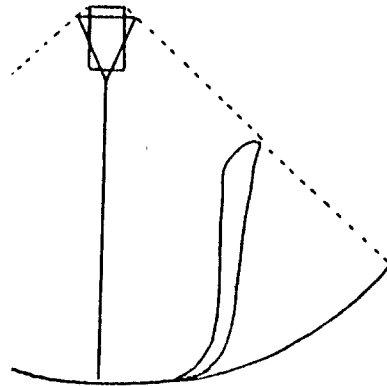
初期에서 baroque 時期에 이
르기까지 Chasuble의 큰 수
태꼴이 이와같이 變化하였
다.



[圖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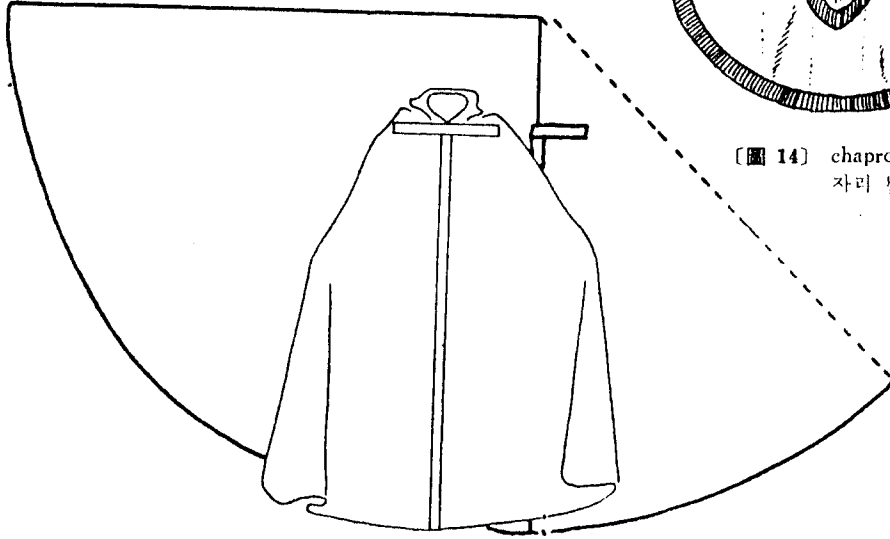


[圖 11] 무거운 布地 때문에 chasuble의
꼴이 變化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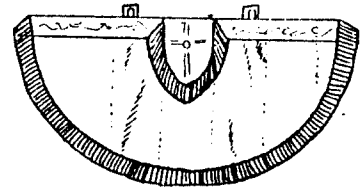


[圖 12] 裁断面이 어깨 위로
움겨진 것.

3. La Chape(法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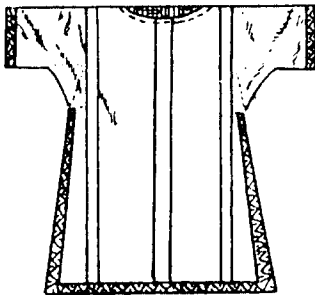


〔圖 13〕 半圓型의 布로 만든 chape.



〔圖 14〕 chapron의 位置와 가장 자리 裝飾.

4. La dalmatique(法衣)



〔圖 16〕 古代 dalmatique



〔사진 15〕

聖 Pierre의 遺物인 dalmatique. Vatican 博物館 所藏. 十字架 아래 浮광의 그리스도와 주위에 天使 聖人들을 화려하게 수 놓았다.

V. 結 論

이상 典禮와 典禮服에 對해서 살펴 보았고, 裁斷法까지도 간단히 살펴 보았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初期 그리스도 信者들의 典禮時에는, 특별히 典禮服이라는 것은 없고 平常服으로 미사를 올렸다. 3~5世紀 (Rome 皇帝 末)에 上流社會 사람들이 입던 옷들이, 차츰 典禮時에 使用되면서 典禮服으로 되어 버린 것이다.

典禮服을 입은 司祭는 自己 個人 資格으로 祈禱와 讚美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神과 人間의 仲介者인 그리스도의 代理者로써 「百姓」을 爲한 典禮를 行하는 것이다.

12~13世紀에 봉진적인 教階制度가 차츰 세력이 강해짐에 따라 主教나 司祭들의 品位를 나타내기 始作했고, 그들이 가진 모든 좋은 것과 값진 것을 하느님을 爲하여 바치고 使用한다는 意味로써, 그들이 입는 祭服에 값진 보석과 킴으로 裝飾하기 始作했다. 이러한 結果로 藝術的인 面에서 歷史上 큰 공헌을 하였으나, 典禮의인 面에서는 그 由來의 意味와는 거리가 먼 쇠퇴 一路였다. 또한 Liber Pontificalis나 Canon에서 모든 規定을 強調하였으므로 發展할 수 있는 길이 희박했다.

1930年 경부터 조금씩 問題意識을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하다가 第二次 바티칸 公議會 以後, 教會 刷新의 움직임에 따라 典禮服에 變化의 길이 열렸다. 그래서 機能的인 衣裳인 典禮服이 복잡하고 값비싼 裝飾을 버리고, 간단하면서도 강한 表現力을 갖는 典禮服으로 바뀌어 가고있다.

오늘날 이 地上 여러곳에 그리스도敎가 存在하고 있으므로, 現代의 方法이나 可能性에 依하여, 各民族들의 風俗이나 生活方式에 맞는 土着化한 典禮服을 갖추는데 對한 여러 問題가 대두되어지고 있다. 그것은 하나의 發展된 現狀이라 볼 수 있고, 典禮服의 變化에 自由로운 發展의 可能性이 주어진 現代에서는 典禮家들과 衣裳家들이 뜻을 모아 보다 意味있고 生命力이 있는 典禮服을 찾는 것이 課題라고 생각한다.

註

- 1) 主教聖務禮式書, 敎皇과 主教들의 儀式을 爲한 規定書. 敎皇 Etienn 1世 때 回勅으로 나와 現在까지도 그 당시의 것을 많이 使用한다.



〔사진 16〕 現在의 delmatique

- 2) 中世 그리스도教 文化의 요람이었던 時期. 各 地方에서 마음대로 典禮儀式이 行해졌던 것을 이 Carolingien 文化時期 (775~825年)에 거의 一致시켰다.
- 3) 典文으로 모든 카톨릭 儀式의 規制와 標本을 기록한 것이다.
- 4) 教會冊歷. 聖務의 1年동안의 祝日 表示와 儀式의 方法을 상세히 說明한 것. 各 教區마다 自體內的 ordo를 첨부할 수 있다.

參 考 文 獻

- (1) L'abbé R. Aigrain, LITURGIA, Librairie Bloud et Gay, Belge., 1947
- (2) J.A. Jungmann, MISSARUM SOLLEMNIA II, Aubier paris, 1952
- (3) A.G. Martimort, L'EGLISE EN PRIÈRE III, Desclée Paris, 1965
- (4) Nella Cosa Didio, DECORO E BELLEZZA, Graphocoler S.P.A. Rome.
- (5) Rev. Thomas W. mullaney, MATTERS LITURGICAL, Frederick Pustet, N.Y., 1956
- (6) François Boucher, 20,000 YEAR OF FASHION, Harry N. Abrams, Inc, N.Y.
- (7) Millia davenport, THE BOOK OF COSTUME, Crown Publishers Inc., N.Y.
- (8) Ludmila Kybalová,
Olga Herbenová, Milena Lamarová, Encyclopédie illustrée de la MODE, Gründ, Paris.,1970
- (9) François Amiot, Histoire de la Messe, Librairie Athème Fayard Paris., 1956
- (10) 돔 힐테브란트 야이젤(トムビルテブランドヤイゼル), 가톨릭典禮入門 II, 中央出版社, Tokyo 1945
- (11) Dr. Anton Hänggi, 가톨릭教 藝術叢書 I, 南窓社, Tokyo, 1966
- (12) 崔允煥, “말씀의 典禮” 司牧(1972. 7), pp. 76~89
- (13) 崔允煥, “典禮의 刷新을 爲한 調節權” 司牧, 1974. 7, pp. 71~77